

## T. S. 엘리엇 시의 노인과 죽음\*

윤석임\*\*

## || 차례 ||

1. 서론
2. 죽음과 재생
3. 죽음과 노인
4. 결론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대표적 뮤지컬인 『캣츠(Cats)』의 원작자이며 20세기 대표적인 모더니즘 시인인 T. S. 엘리엇의 시에 나타난 죽음의 편재와 그 양상을 살펴보고 죽음에 이르는 노년기에 대한 긍정적 사유와 그러한 사유를 도출하게 된 철학적 바탕을 엘리엇의 초기시에서 후기시에 이르기까지 집중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한다. 엘리엇이 초기 시에서부터 다루었던 시간의 문제는 『네 개의 사중주』에서 더욱 심화 되어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사유과정으로 이어진다. 엘리엇은 초기시에서부터 다양한 죽음의 양상을 제시하고 있으나 죽음을 단순한 육체의 소멸로 보지 않음으로써 종말인 죽음을 공포, 두려움이나 환멸의 대상으로 다루지 않는다. 오히려 엘리엇은 노인을 육체적인 감각은 상실했으나 재생과 부활의 희망을 품고 있는 새로운 세계로의 탐험가로 상정하면서 초월적이고 순환적인 삶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로 나아갈 것을 요구한다. 특히 1930-50년대에 걸쳐 쓴 후기 시들에서는 현대인의 공허한 삶과 죽음과 같은 상황에 초점을 맞춘 엘리엇의 대표작 『황무지』(1922)와는 달리 인생의 노년기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에 새로운 변화양상을 보이며 초월적이며 순환적인 부활과 재생의 회구를 담고 있다.

**주제어** : 엘리엇, 죽음, 재생, 노인, 유희, 뮤지컬 캣츠, 다른 세상으로의 탐험가

\* 이 논문은 2018년도 영남대학교 연구년 결과물로 제출됨.

\*\* 영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lityun@ynu.ac.kr

## 1. 서론

뮤지컬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대중화 된 것은 2000년 대 초반이다. 성인 뮤지컬 뿐 아니라 어린이 뮤지컬로 사랑받고 있는 뮤지컬에 『캣츠(Cats)』를 빼 놓을 수 없다.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공연된 뮤지컬인 『캣츠』는 T. S. 엘리엇의 아동을 위한 시 『지혜로운 고양이에 대한 늙은 주머니쥐의 지침서』(*Old Possum's Book of Practical Cats*)(1939)를 기반으로 영국 작곡가인 앤드류 웨버(Andrew Webber)가 곡을 붙였다(Riquelme, 50-1면). 영국 런던 북서부의 뉴런던(New London)극장에서 1981년부터 공연되고 있으며 한국 뮤지컬 최초로 200만 관객을 돌파했고 전국 순회공연 당시 매진 사례가 일어나는 등 국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캣츠』는 갖가지 고양이들의 이야기를 의인화한 뮤지컬이다. 귀여운 몸동작의 정말 고양이같이 보이는 배우들의 연기로 유명하다. 여기에 발레, 탭댄스, 재즈댄스, 아크로바트, 현대무용 등 각 장면 마다 등장하는 다양하고 화려한 춤은 청중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준다. '고양이는 아홉 번 죽었다 살아난다'는 서양의 오랜 전설에 착안하여, 새 생명을 받기 위해 공터로 모여든 갖가지 고양이들이 자신의 일생을 이야기하며 부활의 기회를 얻으려 한다는 줄거리로 꾸며져 있다. 다양한 개성과 성격을 지닌 고양이들의 삶의 여정을 통해 인간세상<sup>1)</sup>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작품에서 필자의 관심을 끈 것은 한때 화려하게 전성기를 누렸으나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와 행복의 의미를 노래하는 늙은 고양이, 그리자벨라(Grizabella)<sup>2)</sup>였다.

1) 엘리엇은 『캣츠』의 원작시 『지혜로운 고양이에 대한 늙은 주머니쥐의 지침서』에서 그 점을 명확히 언급한다.

(“그들의[고양이] 천성을 이해하는데 / 통역자는 필요 없습니다. /보시면서 충분히 느껴를 겁니다. /고양이들이 아주 많이 닳았다는 걸요. /당신이나 나, / 그리고 우리가 아는 여러 다른 사람들과.”)(*OPB*, 53면)

2) 원종원 교수는 “뮤지컬 캣츠를 만든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시집이 원작이기에 뚜렷한 줄거리 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작품을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길 바랐다.”며 “시집

그리자벨라는 구원과 재생의 파티에 끼고 싶어 하지만 다른 고양이들은 그녀의 늙고 누추한 모습을 보고 그녀를 경멸하며 따돌리기에 급급하다. 그러나 그리자벨라는 그러한 상황에 굴하지 않고 젊고 행복했던 시절을 추억하며 내일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는데 그 노래가 세계적으로 최고의 공연기록을 소유하고 있는 캣츠의 대표곡 ‘메모리’(Memory)이다. 이 곡은 음악 방송이나 드라마 삽입곡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주옥같은 작품이다. 물론 곡도 아름답지만 그에 못지않게 빛나고 있는 시구 속에는 노령(old age)이 죽음이라는 끝을 향해 치닫는 파멸의 길의 한 과정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의 장임을 알리고 있다. 이러한 노년기에 대한 긍정적 사유는 후기 시 곳곳에서 드러난다.

엘리엇이 초기 시에서부터 다루어 왔던 시간의 문제는 후기시인 『네 개의 사중주』에서 더욱 심화 되어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사유과정으로 이어진다. 엘리엇은 초기시에서부터 후기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죽음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으나 죽음을 단순한 육체의 물질적 소멸로 보지 않음으로써 공포나 두려움으로 죽음을 다루지 않는다. 오히려 엘리엇은 노인을 육체적인 감각은 상실했으나 재생과 부활의 희망을 품고 영원의 바다로 전진해 나가는 탐험가로 상징하면서 초월적이고 순환적인 삶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로 나아갈 것을 요구한다. 특히 1930-50년대에 걸쳐 쓴 후기 시들에서는 현대인의 공허한 삶과 죽음과 같은 상황에 초점을 맞춘 엘리엇의 대표작 『황무지』(1922)와는 달리 인생의 노년기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에 새로운 변화양상을 보이며 초월적이면서 순환적인 삶에 대한 희망의 정서를 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성당의 살인』(*Murder in the Cathedral*)의 코러스의 대사처럼<sup>3)</sup> 다양한 죽음의 양상들을 엘리엇의 시작품 - 『황무지』, 「게론티온」(“Gerontion”), 그리고 『네 개의 사중주』(*Four Quartets*) -를 통해 살펴보고 시간에 구속된 세속적 삶을 초월하여 영원한 삶을 탐색하는 과정을

에 없는 몇 개의 미발표 시를 엘리엇의 미망인에게 받게 되고, 그리자벨라라는 고양이와 그녀가 부르는 ‘메모리’가 탄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87>)

3) “죽음은 백 개의 손을 가지고 있고 천 가지 길을 걷는다.”(Death has a hundred hands and walks by a thousand ways.)(CPP, 256면)

면밀히 검토한다. 나아가 엘리엇이 보여주는 죽음의 의미와 노쇠현상, 노년기에 대한 시각들을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죽음과 재생

죽음은 늘 시인들의 단골 주제가 되어왔다. 동시대를 살며 엘리엇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미국시인 에드거 리 매스터즈(Edgar Lee Masters, 1868-1950)는 『스푼리버 시선집』(*Spoon River Anthology*)을 통해 마을 묘지에 묻힌 250여명의 죽은 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들은 죽은 후에도 남겨두고 온 자들에 대해 죄의식으로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삶을 떠날 때의 고통으로 괴로워한다(윤석임 447-66면). 엘리엇 역시 시간의 흐름, 그로 인한 필멸적인 인간의 노쇠와 죽음을 그의 시의 소재로 삼았다. 20세기 영미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엘리엇의 대표작 『황무지』도 죽음의 이미지로 점철되어 있다. 죽음을 기원하는 쿠메의 무녀 시빌(Sibyl)의 사연이 서글픈 제사(題詞)에서부터 미쳐 호수에 익사한 루트비히 2세(Ludwig II), 타로카드로 죽음의 경고를 받았으나 결국 물에 빠져 죽게 되는 페니키아 선원 플라마스(Phlebas), 밀레 해전에서 익사한 스텡슨(Stetson), 미쳐 자살하는 오펠리어(Ophelia)와 이에로니모(Hieronymo) 등 수많은 양상의 사실적 죽음 뿐 아니라 상징적 죽음이 독자를 음울하게 맞이한다.

세계적으로 회자되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로 시작하며 죽음의 이미지를 곳곳에서 보여주는 『황무지』 1부 「죽은 자의 매장」(“The Burial of the Dead”)과 필로멜라의 비극적 신화, 죽은 자의 신음소리에 오펠리어의 자살 전 마지막 인사로 끝나는 2부 「체스놀이」(“A Game of Chess”)에 이은 3부 「불의 설교」(“The Fire Sermon”)는 “클랙스 소리와 엔진소리(the sound of horns and motors, CPP, 67면)”만 남은 현대도시 런던의 철 지난 탬즈 강변에 대한 묘사로 시작하여 죽음의 이미지로 이어진다.

그러나 등에 서늘한 바람을 느끼며 나는 듣는다.

뼈가 덜거덕거리는 소리와 귀에서 귀로 전해지는 킥거리는 소리를.

어느 겨울 저녁 가스공장 뒤를 돌아  
음산한 운하에서 낚시질을 하며  
형인 왕의 난파와  
형 이전 부왕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노라니  
귀 한 마리가 끈적대는 배를 강둑에 끌며  
풀밭 속으로 조용히 기어갔다.  
낮고 습기 찬 땅 위의 벌거벗은 하얀 시체들과  
조금 낮은 습기 찬 땅 속에 던져진 뼈들과  
조금 낮은 마른 다락방에 던져진 뼈들은  
해마다 귀의 발에 채어 덜거덕거렸다.

But at my back in a cold blast I hear  
The rattle of the bones, and chuckle spread from ear to ear.

A rat crept softly through the vegetation  
Dragging its slimy belly on the bank  
While I was fishing in the dull canal  
On a winter evening round behind the gashouse  
Musing upon the king my brother's wreck  
And on the king my father's death before him.  
White bodies naked on the low damp ground  
And bones cast in a little low damp ground  
And bones cast in a little low dry garret,  
Rattled by the rat's foot only, year to year. (CPP, 67면)

정신적으로 메마르고 공허하며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지칭하는 “하얀 시체”(white bodies)와 연이어 언급되는 “뼈들”, 달리 말해서 해골과 시체가 땅위에, 땅 속에, 심지어 인간의 생활공간인 집의 다락방에 까지 널려 있는 이곳은 진정 죽음의 땅이다. 해골이 직접적인 죽음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면 연속해서 등장하는 “귀”는 중세에 창궐해서 유럽을 집단적 죽음에 대한

공포로 몰아넣었던 페스트를 연상시킨다.

다른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짧은 10행으로 이루어진 『황무지』 4부 「수사(水死)」(“Death by Water”)는 1부에서 천리안 소소스트리스 부인이 예언한 페니키아 수부의 역사를 알리는 것으로 시작하여 수부의 생전 삶이 어떠했었는지에 대해 생각할 것을 요청하며 끝이 난다. 한 인간의 삶과 죽음을 반 페이지, 3연, 10행의 시구에 담음으로써 시각적, 인식적인 측면의 극적인 대비효과를 낳았으며 삶과 죽음의 거리가 결코 멀지 않음을 충격적인 방식으로 전달한다. 삶과 죽음의 문제가 페니키아 수부 혹은 시에 등장하는 인물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모두의 운명임을 엘리엇은 『황무지』 5부, 「천둥이 한 말」에서 단적으로 축약한다.

살아있던 그는 지금 죽었고  
살아있던 우리는 지금 죽어간다.

He who was living is now dead  
We who were living are now dying. (CPP, 72면)

더 나아가서 죽음이 항상 삶과 공존하고 있음을 늘 곁을 따르는 “제 3자(the third)”로 표현한다.

항상 당신 옆에서 걷고 있는 제 삼자는 누구요?  
세어보면 당신과 나 둘 뿐인데  
내가 이 하얀 길을 내다보면  
언제나 당신 곁엔 또 한 사람이  
모자가 달린 갈색 망토를 두른 채 미끄러지듯 걷고 있소.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알 수 없소.

Who is the third who walks always beside you?  
When I count, there are only you and I together  
But when I look ahead up the white road  
There is always another one walking beside you

Gliding wrapt in a brown mantle, hooded  
I do not know whether a man or a woman (CPP, 73면)

죽음은 모자달린 망토를 둘러 얼굴도 알 수 없고 심지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 인간의 곁을 따라 움직인다. 모자달린 망토를 둘러쓴 죽음은 전쟁으로 파괴되고 무너지는 현대도시의 폐허 속에 어김없이 등장한다.

높이 공중에서 들리는 저 소리는 무엇인가  
모성의 애끓는 중얼거림  
평평한 지평선에 마냥 둘러싸인  
갈라진 땅 위를 비틀거리며 끝없는 벌판위로 떼 지어 오는  
저 두건 쓴 무리는 누구인가

What is that sound high in the air  
Murmur of maternal lamentation  
Who are those hooded hordes swarming  
Over endless plains, stumbling in cracked earth  
Ringed by the flat horizon only (CPP, 73면)

전쟁의 폭격으로 인해 파괴되는 도시들의 죽은 자들의 행렬은 1부 런던교 위를 지나는 가사(假死) 상태의 사람들을 연상시키며 죽음과 삶의 공존에 대한 각성을 불러일으킨다.

엘리엇은 이렇게 정신적으로 메마르고 공허하며 무의미하게 ‘생중사’(death-in-life)의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다양한 시편 뿐 아니라 시극의 등장인물들 - 『대성당의 살인』의 토마스(Thomas) 대주교, 『칵테일파티』(The Cocktail Party)의 셀리아(Celia)와 『가족의 재회』(The Family Reunion)의 해리(Harry) - 의 삶을 통해 드러낸다. 시극의 주인공들이 회생과 순교의 죽음을 통해 재생을 가져오는 것처럼 엘리엇 시의 인물들은 육체의 죽음을 통해 정화되고 영적으로 재생을 이루기를 회구한다.

초기 시 「나르시시스 성자의 죽음」(“The Death of Saint Narcissus”)은 인간이 죽음 이후 물고기를 비롯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 재생됨을 보인다. 『황무지』에서도 많은 변형의 모습들이 독자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1부 도입부에서 죽음을 상징하는 겨울을 지나 힘겹게 피어나는 라일락을 통해 계절적 순환 뿐 아니라 재생과 부활을 암시한다. 이어 다음 시구에서는 구체적이며 직설적인 화법으로 식물의 모습으로의 재생과 부활의 기대감을 표명한다.

자네 밀라에 해전 때 나와 같은 배에 탔었지!  
작년에 뜰에 심은 시체에  
싹이 트기 시작했나? 올해엔 꽃이 필까?

‘You who were with me in the ships at Mylae!  
‘That corpse you planted last year in your garden,  
‘Has it begun to sprout? Will it bloom this year?(CPP, 62-3면)

2부에서는 테레우스에 의해 능욕당하고 혀가 잘린 아름다운 처녀 필로델라가 나이팅게일로 변모하고 바다의 변화력과 생명력을 보여주는 3부에서는 익사한 페니키아 수부의 눈이 진주라는 비생명체로 변하기도 한다. 이렇듯 한 가지 삶의 형태에서 죽음을 통해 또 다른 형태로 탈바꿈하는 윤회는 불교사상의 핵심 중 하나이다. 실제로 엘리엇은 하버드 대학 재학시절 불교, 힌두교를 비롯한 아시아 종교 연구에 심취했었다(Jain, 102-11면). 우주의 모든 존재 - 그것이 생명 또는 비 생명체라 하더라도 - 가 끊임없는 윤회의 과정을 되풀이한다는 믿음은 시편 곳곳에서 드러난다. 그뿐 아니라 『황무지』 5부 「천둥의 메시지」(“What the Thunder said”)는 “주어라(Datta), 동정하라(Dayadhvam), 자신을 통제하라(Damyata)”라는 힌두교의 메시지로 끝맺음을 짓고 있다.

윤회라는 삶과 죽음의 영속적 순환의 원형적 흐름에 더하여 엘리엇은 죽음이 있는 후에야 생명탄생이 가능하다(“In my end is my beginning.” CPP, 183면)라고 했는데 이렇게 머리가 꼬리를 물고 있는 원형의 이미지는 유럽에서는 “죽음의 춤”이라는 모티프로 나타난다. 중세시대 수도원이나 공동묘지

벽에는 “죽음의 춤”(The Dance of Death, danse macabre)이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 그림은 시기에 따라 변화를 보이는데, 공통적으로 모든 계층의 사람이 죽음에 이르고, 죽음이 일상적인 것임을 표현하고 있다. 김성현은 엘리엇의 『황무지』를 도상학적인 기호로 분석했는데 그 중 “죽음의 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죽음의 춤이라는 모티프는 중세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도상학적인 기호 중 하나로 신분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라는 묵시론적인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특히, 한스 홀바인(Hans Hobein)을 비롯한 많은 화가들이 그리고 있는 ‘죽음의 춤’을 다룬 회화들에서는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들과 인간들이 등글게 원을 그리면서 춤을 추고 있는데, 이러한 원형의 이미지는 생의 덧없음을 상징하는 바나타스를 표현하는 둥근 수레바퀴의 이미지로 연결된다.(57면)

또 다른 예로 소소스트리스 부인의 에피소드를 들 수 있다. 카드 점으로 유명한 소소스트리스 부인은 카드를 통해 ‘죽음의 춤’을 비롯한 원형적 이미지를 보여준다.

... 물에 빠져 죽는 걸 조심하세요.  
 때를 지은 군중들이 원을 그리며 돌고 있어요.  
 에퀴톤 부인을 만나거든  
 천궁도를 직접 갖고 가겠다고 전해주세요.

...Fear death by water.  
 I see crowds of people, walking round in a ring.  
 Thank you. If you see dear Mrs. Equitone,  
 Tell her I bring the horoscope myself:(CPP, 62면)

인간의 운명의 수레라 지칭되는 ‘천궁도’에 대한 언급을 포함해서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시간의 수레바퀴를 포함해서 원형적, 나선형적 이미지가 엘리엇의 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또 다른

지면을 통한 심도 있고 통합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 3. 죽음과 노인

필멸의 존재이자 물질적인 육체를 지닌 인간은 죽음에 앞서 노화과정을 피할 수 없기에 죽음의 문제를 천착한 엘리엇에게 노인의 상황에 대한 고민은 필수적인 것이다. 엘리엇이 『황무지』의 서론 격으로 넣으려 의도했으나 파운드(Ezra Pound)의 조언으로 인해 탈락시켰던(*Letters*, 236면) 「게론티온」(“Gerontion”)은 그리스어로 '작은 노인'이라는 뜻이다(Scofield, 102면). 『시 1920』(*Poems 1920*)에 실린 초기 시인 「게론티온」은 초로(初老)의 극적독백으로 시작한다.

여기 내가 있다, 한 메마른 달에 한 늙은이가,  
 소년이 책을 읽어주는 것을 들으며 비를 기다린다.  
 난 치열한 문 앞에 서 있는 적도 없었고  
 따뜻한 비속에서 싸우지도 않았다.  
 짙 내나는 늪 깊숙이 무릎이 빠져가며, 단검 휘두르며  
 파리에 뜯겨가며 싸운 적도 없다.

HERE I am, an old man in a dry month,  
 Being read to by a boy, waiting for rain.  
 I was neither at the hot gates  
 Nor fought in the warm rain  
 Nor knee deep in the salt marsh, heaving a cutlass,  
 Bitten by flies, fought. (CPP, 37면)

이 시에 등장한 노인은 생명력과 열정을 상실한 채 삭막한 현실에 처해 있고 역사 속의 치열한 전투에 참전한 적 없이 역사의 주변인으로서 비 영웅적인 인생을 살아왔음을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 표현한다. 남성적이고 영웅

적인 모습이 강조되는 역사에 의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 현대의 무기력한 개인들이 느끼게 되는 상실감, 소외감, 위축감을 표현하는 게론티온은 남성적, 영웅적 역사가 만들어낸 희생자이기도 하다(Mayer, 233면). “부자연스러운 악덕이 우리의 영웅주의에 의해 생성(Unnatural vices / Are fathered by our heroism. CPP, 38면)” 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메이어(John T. Mayer)나 데일(Alzina Stone Dale)을 비롯한 비평가들은 노쇠한 게론티온을 무너지고 황량한 유럽의 문화, 역사, 제도에 비유하고 게론티온이 거주하는 “무너져 가는 집”(decayed house)은 유럽 그 자체에 대한 상징이라고 주장한다(Dale, 72면). 이어지는 시행에서 독자는 노쇠하여 정신적 열정 뿐 아니라 육체적인 감각능력을 상실하여 황량한 처지에 놓인 노인의 한탄을 듣는다.

나는 정열을 잃었다. 지킬 이유가 무엇인가  
가진 것도 타락하고 말 것인데.  
나는 시각, 후각, 청각, 미각, 그리고 촉각도 잃었다.

I have lost my passion: why should I need to keep it  
Since what is kept must be adulterated?  
I have lost my sight, smell, hearing, taste and touch: (CPP, 38면)

그러나 아직은 죽어 화장터에 놓여 있지도 않으며 4월 봄비 속에서 생명의 싹을 틔우기 위해 처절한 투쟁을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불모의 상황(dry season) 속에 놓여 생중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게론티온 노인은 『황무지』 3부 「불의 설교」에 나오는 티레시아스(Tiresias)라는 게론티온의 분신이자(“a real kinship” Coles, 59면) 더욱 확장되고 역설적인 존재로 등장한다. “마지막 햇살”(CPP, 61면)에서 상징되듯 죽음에 가까워진 티레시아스는 생기를 잃고 늘어진 육신 - 쭈글쭈글한 젖꼭지 -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노인 티레시아스는 죽음에 대해 저항하거나 냉소적인 태도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공감으로 자신이 처한 삶의 현실을 담담하게 묘사한다(Stead 166). 전설에 따르면 티레시아스는 목동과 요정의 아들로써 아테나 여신이 목욕하는 것을 봤

을 때 장님이 됐다. 그러나 아테나 여신은 그를 불쌍히 여겨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인 ‘선견지명(先見之明)’을 줬다. 티레시아스는 육체적으로는 장님이지만, 정신적으로는 미래와 신의 뜻을 볼 수 있는 존재자체가 역설적인 자다(“blind seer,” Claes, 109면).

이상의 설명처럼 엘리엇은 서로 대립 및 상반되는 요소들을 역설적 통합을 통해 동일선상에 제시한다. 출생과 죽음을 동일 순환과정으로 파악하고 여성과 남성, 신과 인간, 자연과 인간, 정신과 육체, 움직임과 정지점 등 많은 대립 항들을 시에 담는다. 특히 불교, 힌두교 뿐 아니라 동양철학의 신비주의에 대한 연구(Birsanu, 56면) 이후 1935년-1942년 사이에 발표된 네 개의 시를 묶은 엘리엇의 『네 개의 사중주』는 다양한 대립 항들을 난해한 방식으로 통합한다. 이 시에서 엘리엇은 자신의 시를 통해 보여 왔던 두 세계 - 시간의 구속에 얽매인 지상의 세계와 영원한 구원의 초월적 세계 - 를 바퀴라는 상징을 통해 통합한다. 전자는 “회전하는 세계”(the turning world)로, 후자는 “정지점”(the still point)으로 상징되며 정지점에서 모든 시간은 통합되어 무시간의 경지에 다다른다.

우리가 시작이라 하는 것이 종종 끝이며  
종지부를 찍는다는 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끝은 곧 우리의 시작점이다.

What we call the beginning is often the end  
And to make an end is to make a beginning.  
The end is where we start from.(CPP, 197면)

결국 우리가 죽어간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 태어나고 살아갈 것을 의미한다. 삶은 죽어가는 과정이며 죽음은 새 삶의 시작이니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이가 들어가고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고뇌는 깊어가고 육체의 죽음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영적 싸움은 더 치열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삶과 죽음의 순환을 이해한다면 죽음의 순간을 두려워하거나 움츠러 들기보다는

진정한 탐험가의 마음으로 끝없이 새로이 도래할 낯설고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꿈꾸며 전진해야 한다.

노인은 탐험가가 되어야 한다.  
여기나 저기는 문제되지 않는다.  
더 심오한 결합, 더 깊은 교감을 이루기 위해  
어두운 추위와 텅 빈 황무지를 지나  
우리는 조용히 또 다른 강렬함 속으로 움직여야 한다.

Old men ought to be explorers  
Here or there does not matter  
We must be still and moving into another intensity  
For a further union, a deeper communion  
Through the dark cold and the empty desolation,(CPP, 182-3면)

“정지점(still point)”을 통해 제한적 시간의 굴레를 초월하여 열정을 다해 암울하고 적막한 황량함을 지나 또 다른 화합과 심오한 교감을 이루고자 하는 노인은 진정한 영적 “탐험가”로서 “진정한 목적지”(real destination)를 향해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도 전진을 이어가야 한다.

오, 항해자들여, 오 뱃사람들여,  
항구에 온 당신들, 육신이  
바다의 시련과 심판  
또는 어떤 일이 될지 모르는 일을 겪을 그대여  
이것이 그대의 진정한 목적지이다.  
...  
... 잘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해자들여,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이다

O voyagers, O seamen,  
You who came to port, and you whose bodies  
Will suffer the trial and judgement of the sea,

Or whatever event, this is your real destination....

Not fare well,  
But fare forward, voyagers.(CPP, 188면)

단순히 정점으로 돌아가는 구심회귀의 움직임이 아니라 진정한 목표를 향해 상승적인 소용돌이 패턴의 전진만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시각으로 죽음과 노인을 바라보는 엘리엇의 시들은 인생 자체에 대해 긍정적이며 죽음과 노령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의 정서를 재생에 대한 희망과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대체해 간다.

이렇게 현대인의 전형으로 인간의 영적 불모성과 허무성을 상징한다고 보았던 노인에 대한 엘리엇의 시각은 죽음에 대한 사유와 함께 후기 시로 갈수록 긍정적으로 바뀌어 간다. 생명의 바다로의 전진적인 향해, 층계를 오르려는 상승의 이동 이미지를 등장시키며 노인들을 영원한 초월적 세계로의 탐험자로 보았다. 미국의 시인 롱펠로(Henry Wadsworth Longfellow)는 “모리투리 살루타마”(Morituri Salutamas)<sup>4)</sup>라는 시를 통해 예외적일 정도로 탁월한 노년기의 업적들을 예시하고 죽음을 직면하게 될 노년기의 비장한 각오를 로마 검투사들에 비유하여 제목에 담았다.

케이토<sup>5)</sup>는 80세에 그리스어를 배웠고 소포클레스가  
그의 위대한 오이디푸스와 시모니드를 쓰고  
동료들을 누르고 시부문의 상을 탄 것은  
80세를 넘겼을 때였다.  
스오프 라스투스스는 90세에  
“사람의 성격”이라는 작품을 시작했고  
초서는 나이팅게일이 있는 우드스톡에서

4) “목숨을 바칠 자들이 폐하게 인사 드립니다”라는 의미로 이 말의 유래는 로마시대 죽음을 직면한 검투사들이 황제 앞을 행군할 때 외치던 것이다.

(<https://www.dictionary.com/browse/morituri-te-salutamus>)

5) Marcus Porcius Cato(95-46 B.C.) 로마의 정치가·철학자

60세에 켄터베리 이야기를 썼다.  
 바이마르의 괴테는 끝까지 애를 써서  
 80세가 넘어 파우스트를 완성했다.

...  
 하지만 다른 것들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을까?  
 비록 다른 옷을 갈아입었으나 젊음 못지않게  
 노령(老齡)도 기회이므로

...  
 저녁노을이 사라지면서  
 하늘은 낮에는 보이지 않는 별들로 가득 차 있다.

Cato learned Greek at eighty; Sophocles  
 Wrote his grand Oedipus, and Simonides  
 Bore off the prize of verse from his compeers,  
 When each had numbered more than fourscore years,  
 And Theophrastus, at fourscore and ten,  
 Had but begun his "Characters of Men."  
 Chaucer, at Woodstock with the nightingales,  
 At sixty wrote the Canterbury Tales;  
 Goethe at Weimar, toiling to the last,  
 Completed Faust when eighty years were past.

...  
 But other something, would we but begin;  
 For age is opportunity no less  
 Than youth itself, though in another dress,  
 And as the evening twilight fades away  
 The sky is filled with stars, invisible by day.(313-4면)

젊음 못지않게 노년도 또 다른 것을 시도할 기회이며 젊음의 태양빛에 눈  
 이 부서 보이지 않던 별과 같은 지혜와 진실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위 시구는 엘리엇의 초기시 「제이 앨프레드 프루프록의 연가」("The Love  
 Song of J. Alfred Prufrock")의 구절 - "시간은 있으리라(And indeed

there will be time),"와 "그럼 한번 해 볼까?(And should I then  
 presume)?"에 대한 대답이자 "노인은 탐험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엘리엇의  
 시구와 맥을 같이하는 듯하다.

#### 4. 결론

향년 76세(1888.9.26.~1965.1.4.)에 타계한 엘리엇은 굴곡진 삶을 통해  
 방대한 폭과 깊이의 사유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그가 노년에 접어들면서(48  
 세부터 54세까지) 발표한 네 편의 작품들- 「버트 노트」(Burnt  
 Norton)(1936), 「이스트 코커」(East Coker)(1940), 「드라이 샬비지즈」  
 (The Dry Salvages)(1941), 그리고 「리틀 기딩」(Little Gidding)(1942)-  
 을 통합한 『네 개의 사중주』(Four Quartets)는 엘리엇이 평생의 역작들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세계관과 문학관을 망라하는 철학적 사유의 결정판이  
 라 할 수 있다. 이 작품 속에 드러나는 엘리엇의 사관(死觀)에 따르면 죽음을  
 존재의 소멸로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영혼이 육체와 물질의 한계와 제약을  
 벗어나 진정한 자유, 진정한 목적지로 향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와 초월의 시  
 간의 장으로 받아들임으로서 더 큰 우주적 자아의 합일을 꿈꾸는 순간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초기 시에서 황폐한 현대의 불모성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쇠  
 락한 노인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에 한 발짝 다가선 존재로 초월의 순간을  
 위해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탐험가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새로  
 운 초월의 순간을 앞두고 있는 노인은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온전히 버텨낼 수 있는 열정을 키우고 해안을 갖추어야 한다.

시인 엘리엇이 노년에 접어들어 51세에 발표한 『지혜로운 고양이에 대한 늙  
 은 주머니쥐의 지침서』(1939)를 원작으로 한 『캣츠』는 전대미문의 흥행 성  
 적을 남긴 뮤지컬이다. 이 작품을 '세계 4대 뮤지컬'의 대열에 올려놓는데 지  
 대한 공을 하게 된 "메모리"의 가사처럼 죽음은 필멸의 존재인 인간이 티끌  
 같은 먼지로 화하여 영원한 무(無)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룻밤이 가

고, 또 다른 날이 밝아올(another night is over, another day is dawning.)” 것이며 또 다른 세상(another world)으로의 이동이며 또 다른 시작일 뿐이다. 따라서 또 다른 세계로 새 삶과 부활의 탐험을 떠날 준비를 하는 노인은 경멸이나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젤리클 캣’(Jellicle Cat) 선발 무도회에서 젤리클 캣으로 뽑혀 축복의 대합창이 울리는 가운데 천상의 세계로 올라가는 늙고 추하지만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을 간직하고 동시에 또 다른 삶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꿈꾸는 그리자벨라처럼 인정과 응원과 축복의 대상이다.

노인이 살아온 축적된 시간이 상징하는 역사에 대해 엘리엇은 “시인이 스물다섯 살이 넘어서도 계속 시인으로 남고 싶으면 역사 감각은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주장(SE, 4면)했으며 “역사 없는 민족은 / 시간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다”고(CPP, 197면) 역설했다. 그러나 21세기 현재 한국의 노인은 한국의 타자가 되어가고 있으며 인터넷 세상과 현실세계에서 야유와 배척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노인이 살아온 축적된 ‘시간’의 부정은 다른 아닌 역사적 과거의 부정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은 노인이 점점 사회의 타자로 밀려나는 21세기 한국의 독자들이 엘리엇의 작품을 읽고 숙고해 보아야 할 메시지인 것 같다.

### [Abstract]

#### Death and Old Men in T. S. Eliot's Poetry

Yun, Sukim  
Yeungnam University

The world-famous musical *Cats*, based on *Old Possum's Book of Practical Cats* by T. S. Eliot, tells the story of “Jellicle Cats” and a “Jellicle Ball” to choose which cat will be reborn and get another chance of life. It is mainly the story of a miserable, decrepit, old character's death-in-life and rebirth. Its theme is consistent with that of Eliot's poetry. From the early poems through *The Waste Land* to *Four Quartets*, Eliot's poetry is haunted with dea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death and rebirth, and to identify Eliot's positive attitude towards death and old age. Influenced by Hinduism, Buddhism, mysticism, and other Asian philosophies, Eliot reveals his belief in circular fluidity of life and death. The acceptance of death and the sublimation of death represent Eliot's views of death. Old men should not be afraid of death and try to get over the empty desolation of their existence. They ought to be explorers seeking for their real destination and their own rose garden. Old men conquer death and time through death itself, leading to perpetual seasonal cycle of death and rebirth.

**Key words** : T. S. Eliot, Death, Rebirth, Old Men, Reincarnation, Musical *Cats*, Explorer to Another World

## 참고문헌

- 김성현. 「T. S. 엘리엇의 『황무지』에 나타난 도상학적 이미지 분석」, 『서강인문논총』 33, 2012, 39-87면.
- 윤석임. 「소도시 삶의 우울한 초상: 에드거 리 매스터즈의 『스푼리버 시선집』」, 『국제언어문학』 제 30호, 2014, 447-66면.
- Birsanu, Roxana Stefania. *T. S. Eliot's The Waste Land as a Place of Intercultural Exchanges: A Translation Perspective*. Newcastl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14.
- Claes, Paul. *A Commentary on T. S. Eliot's Poem The Waste Land: The Infertility Theme and the Poet's Unhappy Marriage*. New York: Edwin Mellen Press, 2012.
- Coles, eds. *T. S. Eliot's Major Poems and Plays*. Toronto: Coles Publishing Company Ltd., 1981.
- Dale, Alzina Stone. *T. S. Eliot: The Philosopher Poet*. Bloomington: iUniverse, 2004.
- Eliot, T. S. *Old Possum's Book of Practical Cats*. New York : Harcourt Brace Jovanovich, 1982.[OPB로 표기함]
- \_\_\_\_\_. *The Complete Poems an Plays of T. S. Eliot*. London: Faber & Faber, 1969.[CPP로 표기함]
- \_\_\_\_\_. *T. S. Eliot: Selected Essays 1917-1932*.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mpany, 1932.[SE로 표기함]
- Jain, Manju. *T. S. Eliot and American Philosophy: The Harvard Years*. London: Cambridge UP, 1992.
- Longfellow, Henry Wadsworth. *The Complete Poetical Works of Henry Wadsworth Longfellow*. Boston: Houghton, Mifflin and Company, 1903.
- Mayer, John. *T. S. Eliot's Silent Voices*. New York: Oxford UP, 1989.
- Paige, D.D. ed. *The Letters of Ezra Pound: 1907-1941*. London: Faber and Faber, 1951.[Letters로 표기함]
- Riquelme, John Paul. "Critical Reception and Influence." *Critical Insights: T. S. Eliot*. Ed. John Paul Riquelme. Ipswich: Salem Press, 2010, 50-1면.
- Scofield, Martin. *T. S. Eliot: the poems*. London: Cambridge UP, 1988.
- Stead, Christian Karlson. *The new poetic: Yeats to Eliot*. London: Hutchinson

- Univ. Library, 1964.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64095](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64095), 검색일 2017년 12월 20일
-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87>, 검색일 2018년 2월 25일.
- <https://www.dictionary.com/browse/morituri-te-salutamus>, 검색일 2018년 9월 10일.

이 논문은 2018년 11월 16일 접수되어 12월 17일까지 심사받아 12월 20일 게재 확정됨.
---